

성인 애착유형과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및 이성교제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types, love styles and dating of single people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 노유진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박정윤

교수 김양희

Dept. of Family Welfare & Residential environment, Chung-Ang Univ.

Master : Noh Eu Jin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istant Professor : Park Jung Yun

Professor : Kim Yang Hee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among parental bonding, attachment styles, love styles and satisfaction in dating and their effects on other variabl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The stronger the relationship with one's parents in infancy, the higher the possibility to forge secure attachment. 2)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love styles. 3)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dating satisfaction. 4)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on dating satisfaction and duration among different love types.

This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forging secure attachmen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found related variables that can affect dating satisfaction and duration. However, the study results were based on a limited group of people, which limits the generalizability of the results to the general public. Follow-up studies that cover a wide range of age groups and related variables are necessary.

주제어(Key Words): 부모와의 유대(parental bonding), 애착유형(attachment styles), 사랑유형(love styles), 이성교제 만족도(dating satisfaction)

I. 서론

배우자 선택에서 가문의 비중이 컸던 전통 사회에서는 중매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당사자 간의 사랑과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결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성교제는 결국 배우자 선택의 실질적인 준비과정이 된다. 최근 이성교제는 이성과의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이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적 욕구 충족의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나, 오늘 날 미혼 남녀들은 더 이상 이성교제와 결혼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이를 통해 올바른 배우자 선택의 기준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김양희, 문영소, 박정운, 2003), 이성교제 경험이나 만족도는 결혼 이후의 생활이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Spanier & Lewis, 1979) 배우자 선택 과정으로서의 이성교제의 중요성은 과소평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성교제 경험 및 만족도가 결혼생활 및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고(Spanier & Lewis, 1979), 연애결혼을 한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가 중매결혼을 한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보다 높다는(김민녀, 2003) 연구결과들은 결혼 만족도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이성교제의 중요성을 더욱 지지한다.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이를 선호하는 현대사회에서, 결혼생활의 질(quality)과 만족도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써 이성교제의 중요성이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 관계는 상호 간의 책임이 덜하기 때문에 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관계 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 분야에서 부부 관계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성교제와 관련 된 국내의 연구들은 이성교제 시 발생하는 폭력, 성 행동 및 태도 등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이성교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주연, 2001; 박선미, 2003; 유소영, 2000; 정유정, 2005)는 최근에 들어서야 등장하기 시작해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이성교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관계로, 현대사회의 미혼남녀에게 이성교제 시 당사자 간의 사랑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이성교제나 결혼, 가족관계의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된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사랑의 유형이 제시되었고(Lee, 1988; Maslow, 1954; Sternberg, 1986) 당사자 간 사랑유형의 일치 정도나 사랑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Meeks, Hendrick, Hendrick, 1998) 또한, 개인의 사랑유형에 따라서 이성교제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Hendrick, Hendrick, Dicke, 1988)가 보고 되면서 사랑유형과 이성교제 만족도 간에 관련성이 있음이 드러났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유소영(2000), 이민재(2001)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아 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줄도 안다고 하는데, 성인기 이후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생애 초기에 자신들이 받은 사랑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omm, 1956) 생애 초기의 경험은 주로 원가족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즉, 사랑이 생애 초기의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애 초기의 부모와의 관계는 애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Brenttheton, Ridgeway & Cassidy, 1990) 성인의 성격(Main, Kaplan & Cassidy, 1985)과 올바른 대인관계(Kenny & Kashy, 1994)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성인 애착유형은 개인의 유형 및 파트너와의 조합에 따라 개인의 특성 및 관계의 질(quality)에도 영향을 미치고(Hazan & Shaver, 1987), 애착 유형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사랑의 양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Hazan & Shaver, 1987)이 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착유형과 사랑유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 되었지만(강진경, 1996; 김덕일, 1996;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장휘숙, 2002), 이들은 사랑유형을 성차 중심으로 설명하였거나(강진경, 1996; 정태연 외 2인, 2000),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여(김덕일, 1996) 미혼남녀들의 사랑에 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 날 이성교제는 결혼생활의 질이나 만족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고, 사랑은 이러한 이성교제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애착은 성인기의 사랑 및 이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이 성장기에 겪은 부모와의 유대 정도가 성인기 이후 이들의 애착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로 인한 애착유형이 그들의 사랑과 이성교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

1) 노익상(2002)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남녀 1,164명 중 연애결혼이 48%를 차지하였고 결혼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그 비중은 점차 늘어나 결혼 지속기간이 10년 미만인 부부들의 경우에는 연애결혼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가족유형, 출생순위) 및 부모와의 유대 정도에 따른 성인 애착유형 분포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사랑유형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사랑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이성교제 경험 및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 성인 미혼남녀로만 제한하였다. 부모(주 양육자)와의 유대, 애착, 사랑, 이성교제는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령 외의 다른 제한변수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성교제 만족도 및 기간과 관련된 질문은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위해 이성교제 경험이 적어도 1번 이상 있는 사람들만 응답하도록 제한하였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부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배포,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총 391부의 자료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으나, 이성교제 만족도와 관련된 분석에는 이성교제 경험자 318명의 자료가, 이성교제 지속기간과 관련된 분석에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응답자 154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의 구성과 내용

(1) 부모와의 유대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Parker 등(1979)이 개발한 부모와의 유대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는 핵심적인 부모 양육차원인 부모의 돌봄(care)과 과잉보호에 관한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로써,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해 돌봄(care) 차원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과잉통제 및 제한(overprotection) 차원을 측정하는 13개 문항 등 전체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문항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측정하도록 하여 부모 각각의 돌봄과 과잉보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유대 정도가 안정적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므로 부모를 구분하여 그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주 양육자'로 변환하여 통합 측정하였다.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가되어, 최

저 25점부터 최고 125점까지 측정될 수 있고 총 9개의 부정 문은 역코딩 되어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유대 정도가 깊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부모의 돌봄 척도에서 .8714, 과보호 척도에서 .8800으로 나타났다.

(2) 성인 애착유형

성인 애착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를 위해 Collins & Read(1990)가 개발한 성인 애착 질문지(RAAS: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진술문항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8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가된다.

대인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느끼는 편안함 정도(친밀), 타인에 대한 의존의 정도(의존), 자신이 버림 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불안)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밀감 요인은 자신이 상대방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유형과 관련이 있다. 불안감 요인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유형과 반대된다. 의존감 요인은 편안하게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유형과 관련이 있다.

세 하위척도는 각각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8 문항이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어 각 하위척도별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까지 평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 적용 시, 하위 척도 별로 각각 분석하기도 하고 판별분석을 통해 애착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하기도 하며, 의존감과 친밀감 요인을 더한 후 불안감 요인을 뺀 점수로 분석하기도 한다.(Collins & Read, 1990)

본 연구자는 각 하위척도의 점수를 비교분석하여 세 하위척도 중 친밀감 척도가 가장 높으면 안정적 유형으로, 불안감 척도가 가장 높으면 불안·양가적 유형으로, 의존감 척도가 가장 높으면 회피적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의존감 척도와 불안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답변이 되도록, 친밀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되도록 역코딩 처리하였다. 2개 이상의 하위척도에서 동일한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무응답 처리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의존감, 불안감, 친밀감 차원에서 .7253, .6712, .6343으로 나타났다.

(3) 사랑의 유형

사랑유형척도는 Hendrick과 Hendrick(1986)이 Lee(1973)의 검사를 기반으로 개발한 '사랑의 태도 척도(love attitud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에로스, 루두스, 스토르게, 프래그마, 매니아, 아가페 총 6개의 사랑유형을 각각 7문항으로 측정하여 총 42개의 문항을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에로스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강한 정서적 감정을 수반하며, 이들은 강렬하면서도 육체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관계를 원한다. 루두스는 유희적 사랑을 의미하고, 이들은 사랑을 일종의 게임 또는 놀이라고 생각한다. 스토르게는 우애적 사랑으로, 사랑을 특별한 종류의 우정이라고 여긴다. 프래그마는 실용적 사랑으로, 이들은 상대가 자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여 어울리는 상대를 찾는다. 매니아는 소유욕이 강한 광적인 사랑으로, 극도의 의존성과 질투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아가페는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 당 최저 7점에서 최고 35점까지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랑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성향이 강함을 나타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하위척도를 응답자의 사랑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성인 애착유형 분류 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유형별 총점이 2개 이상 동일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무응답 처리를 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에로스, 루두스, 스토르게, 프래그마, 매니아, 아가페의 각 하위 척도별 .8335, .5609, .6942, .7367, .8282, .8690으로 나타났다.

(4) 이성교제 만족도

Bowden(1977)이 Roach(1975)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 중 변별도가 높은 48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이인수, 유영주(1986)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미혼의 남녀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11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거쳐 추가한 9문항을 더해 총 20문항으로 이성교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 까지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인수, 유영주(1986)가 번안한 결혼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는 .97로 매우 높았으며, 본 연구자의 부분 수정 및 문항 추가를 통해 구성된 이성교제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역시 .826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5) 이성교제 기간

현재 이성교제 중인 응답자에게 파트너와의 합의 하에 보다 친밀한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응답 당시의 기간까지를 개월 수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에 기초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3. 연구 대상자의 특성

(1)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391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고, 이 중 남자는 152명으로 전체의 40.7%, 여자는 232명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였다. 남자의 평균 연령은 24.01세(S.D=2.43), 여자의 평균 연령은 22.40세(S.D=2.59)로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연령임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은 남녀 모두 핵가족이 가장 많았고, 출생순위는 응답자의 69.1%(n=270)가 장남, 장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남자 응답자의 62.3%(n=99)가 대학교 재학, 여자 응답자의 76.7%(n=178)가 대학교 재학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직 학생임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평균 연령은 23.05세로 20대 초반의 응답자가 대부분이고 가족 유형은 핵가족, 출생 순위는 첫째, 학력은 대학교 재학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2)연구 대상자의 이성교제 현황

응답자의 이성교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성별		전체
		남자	여자	
19세 이상 - 24세 이하		84 (52.8)	194 (83.6)	278 (71.1)
25세 이상 - 29세 이하		75 (47.1)	34 (14.6)	109 (27.8)
30세 이상		0 (0.0)	4 (1.7)	4 (1.0)
평균연령(S.D)		24.01(2.43)	22.40(2.59)	23.05(2.64)
가족유형 (%)	핵 가족	142 (89.3)	211 (90.9)	353 (90.3)
	확대가족	17 (10.7)	19 (8.2)	36 (9.2)
	기 타	0 (0.0%)	2 (0.9)	2 (0.5)
출생순위 (%)	첫 째	129 (81.1)	141 (60.8)	270 (69.1)
	둘 째 ²⁾	13 (8.2)	29 (12.5)	42 (10.7)
	셋째 이하 ³⁾	1 (0.6)	11 (4.7)	12 (3.1)
	막 내 ⁴⁾	13 (8.2)	36 (15.5)	49 (12.5)
	기 타	3 (1.9)	15 (6.5)	18 (4.6)
학력 (%)	대학교 재학	99 (62.3)	178 (76.7)	277 (70.9)
	대학교 졸업	58 (36.5)	44 (19.0)	102 (26.1)
	대학원 재학	2 (1.3)	10 (4.3)	12 (3.1)
계(%)		159 (40.7)	232 (59.3)	391(100.0)

2) 형제자매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서 동생이 있는 경우
 3) 형제자매 구성원이 2명 이상이면서 동생이 없는 경우
 4) 형제자매 구성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전체 391명 중 81.3%(n=318)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이성교제 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1번 18.2%(n=71), 2번 18.7%(n=73), 3번 19.4%(n=76), 4번 9.5%(n=37), 5번 이상 17.6%(n=69)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이성교제 경험이 1번 이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성교제 만족도 측정 분포를 살펴보면, 총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전체의 5.3%(n=21), 60점 이상-70점 미만이 28.6%(n=112), 70점 이상-80점 미만이 30.4%(n=119), 80점 이상-90점 미만이 16.6%(n=65), 90점 이상이 2.0%(n=8)로 나타났다. 전체 391명의 응답자 중 현재 이성교제 중인 응답자는 39.4%(n=154)로 이들의 이성교제 지속기간은 1년 미만이 42.8%(n=66), 1년 이상-2년 미만이 27.2%(n=42), 2년 이상-3년 미만이 19.4%(n=30), 3년 이상이 10.3%(n=16)으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적은 분포를 보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ANOVA), t-검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연구문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인

〈표 2〉 연구 대상자의 이성교제 현황

변인	집단	N (%)
이성교제 경험	있다	318 (81.3)
	없다	73 (18.7)
이성교제 횟수	1 회	71 (18.2)
	2 회	73 (18.7)
	3 회	76 (19.4)
	4 회	37 (9.5)
	5회 이상	69 (17.6)
	무응답	65 (16.7)
이성교제 만족도	60점 미만	21 (5.3)
	60점 이상 - 70점 미만	112 (28.6)
	70점 이상 - 80점 미만	119 (30.4)
	80점 이상 - 90점 미만	65 (16.6)
	90점 이상	8 (2.0)
	무응답	66 (16.8)
현재 이성교제 진행여부	그렇다	154 (39.4)
	아니다	236 (60.4)
	무응답	1 (0.3)
	계	391(100.0)
이성교제 지속기간	1년 미만	66 (42.8)
	1년 이상 - 2년 미만	42 (27.2)
	2년 이상 - 3년 미만	30 (19.4)
	3년 이상	16 (10.3)
	계	154(100.0)

애착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성별, 가족유형, 출생순위로 정하고, 종속변수는 성인 애착유형의 하위변인 친밀감, 불안감, 의존감으로 정하고 독립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와의 유대 정도에 따라 성인 애착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문제 2. 성인 애착유형에 따라 사랑유형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문제 3. 성인 애착유형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 및 교제 지속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성인 애착유형, 종속변수는 이성교제 만족도와 기간으로 정하고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5) 연구문제 4. 사랑유형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사랑유형, 종속변수는 이성교제 만족도와 기간으로 설정하고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Scheffe를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인 애착유형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성인 애착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종속변수인 성인 애착유형은 분류 기준인 친밀감, 불안감, 의존감⁵⁾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친밀감과 의존감 하위요인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자의 평균 친밀감 점수는 19.95(S.D=3.01)로 여자 평균 19.02(S.D=2.56)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친밀감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안정적 애착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의존감 요인에서는 여자의 평균점수가 16.60(2.90)으로 남자 15.31(4.53)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회피적 애착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유형은 핵가족, 확대가족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봤는데, 두 집단 내 친밀감, 불안감, 의존감 하위척도의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 과정동안의 가족 구성원 수나 가족유형은 성인 애착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역코딩으로 인해 의존감이 낮을수록 점수는 높아지도록 설정하였다.

〈표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인 애착유형 하위요인별 차이

종속변수 하위요인	집단	N	Mean(S.D)	T
친밀감	남	159	19.95(3.01)	3.172**
	여	229	19.02(2.56)	
	핵가족	350	19.39(2.67)	-1.195
	확대가족	28	19.50(3.70)	
불안감	남	151	16.01(3.18)	.885
	여	227	15.74(2.85)	
	핵가족	342	15.75(2.95)	-1.883
	확대가족	26	16.88(3.25)	
의존감	남	153	15.31(4.53)	-3.110**
	여	226	16.60(2.90)	
	핵가족	341	15.94(3.77)	-1.453
	확대가족	28	17.00(2.69)	
첫째 둘째 이하	남	267	19.53(2.73)	1.364
	여	90	19.12(2.91)	
	남	258	15.73(3.01)	-1.126
	여	89	16.10(2.93)	
첫째 둘째 이하	남	262	16.02(3.76)	-.463
	여	86	16.21(3.58)	

**p<.01

출생순위는 외동아들, 외동딸 집단(n=31)을 제외하고 첫째 인 사람과 둘째 이하인 사람,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가족유형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 내 친밀감, 불안감, 의존감 하위적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첫째 자녀이든, 그렇지 않은 성인 애착유형 분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2. 부모와의 유대와 성인 애착유형

부모와의 유대에 따라 성인 애착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와의 유대 정도는 최하 55점부터 최고 120점까지의 분포를 보였는데, 좀 더 명확한 차이를 보기 위해 이를 총점에 따라 상, 중, 하 3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부모와의 유대 정도 평균이 92.35점(S.D=14.42)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점수가 속하는 80점 - 95점을 중간 집단으로 설정하였고, 분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집단 간 점수차를 10점씩 두었다. 즉, 총점이 70점 이하이면 '하', 80점 - 95점이면 '중', 105점 이상이면 '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총 184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고 부모와의 유대 정도와 성인 애착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68.579***$, $df=4$)

자료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중 안정적 애착에 속하는 사람은 전체의 45.6% (n=84),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을 나타내는 사람은 14.6%(n=27),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은 39.6%(n=73)로 나타나 안정 - 회피 - 불안·양가의 순을 보였다.

각각의 애착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유대 정도 분포를 살펴 보면 안정적 애착유형의 경우 전체의 55.9%(n=47)가 '중' 집단, 35.7%(n=30)가 '상' 집단으로 분류되고 '하' 집단에는 단지 8.3%(n=7)만이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유형과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각각 81.4%(n=22)와 61.6%(n=45)가 '하' 집단으로 분류되어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의 분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각 유형 별 부모와의 유대 정도 평균점수를 보면, 안정적 애착유형 98.20(S.D=8.34), 회피적 애착유형 81.52(S.D=17.62), 불안·양가적 애착유형 76.82(S.D=15.26) 순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유대 정도는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

〈표 4〉 부모와의 유대에 따른 성인 애착유형별 차이

		성인 애착유형(%)			
		안정	불안·양가	회피	계
부모와의 유대 정도	하 (55점 이상-70점 이하)	7 (8.3)	22 (81.4)	45 (61.6)	74 (40.2)
	중 (80점 이상-95점 이하)	47 (55.9)	3 (11.1)	17 (23.2)	67 (36.4)
	상 (105점 이상-120점 이하)	30 (35.7)	2 (7.4)	11 (15.0)	43 (23.3)
	계(%)	84 (45.6)	27 (14.6)	73 (39.6)	184(100.0)
부모와의 유대정도 평균(S.D)		98.20(8.34)	76.82(15.26)	81.52(17.62)	92.35(14.42)
χ^2		68.579***			
df		4			

***p<.001

람들이 가장 높고,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3.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사랑유형

성인 애착유형에 따라 사랑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총 33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성인 애착유형과 사랑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9.987^{***}$, $df=10$) 자료 분석에 이용된 전체 응답자 중 안정적 애착유형은 전체의 66.4%($n=224$),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이 9.7%($n=33$), 회피적 애착유형이 23.7%($n=80$)로 분류되었다. 사랑유형에서는 프래그마가 34.12%($n=11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에로스 23.4%($n=79$), 아가페 20.7%($n=70$), 매니아 8.6%($n=29$), 스토르케 7.7%($n=26$), 루두스 5.3%($n=18$)의 순으로 분류되었다.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사랑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안정적 애착유형의 경우 프래그마 33.0%($n=74$) - 아가페 25.0%($n=56$) - 에로스 24.1%($n=54$)의 순으로 나타났고, 불

안·양가적 애착유형은 프래그마 39.3%($n=13$) - 에로스 30.3%($n=10$) - 매니아 15.1%($n=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프래그마 35.0%($n=28$) - 매니아 20.0%($n=16$), 에로스 18.7%($n=15$) 순의 분포를 보였다.

이처럼 안정적 애착유형과 달리 불안·양가적 애착유형과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매니아 유형에서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결과이다. 또한, 모든 사랑유형에서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것에 비해 매니아 유형에서만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것도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과 매니아 사랑유형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일수록 사랑을 할 때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

성인 애착유형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독립변수는 성인 애착유형, 종속변수를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으로 두고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성교제 만족도 분석에는 이성교제 경험이 1번 이상 있는 311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고, 이성교제 지속기간에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149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평균 73.67점($S.D=9.0$),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평균 70.07점($S.D=6.7$),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평균 69.60점($S.D=10.2$)을 기록하였고, 분산분석(ANOVA) 결과 이러한 애착유형 별 이성교제 만족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6.313^{**}$)

<표 5>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사랑유형별 차이

		애착유형(%)			
		안정	불안·양가	회피	계
사랑유형(%)	에로스	54 (24.1)	10 (30.3)	15 (18.7)	79 (23.4)
	루두스	14 (6.2)	1 (3.0)	3 (3.7)	18 (5.3)
	스토르케	18 (8.0)	2 (6.0)	6 (7.5)	26 (7.7)
	프래그마	74 (33.0)	13 (39.3)	28 (35.0)	115 (34.1)
	매니아	8 (3.5)	5 (15.1)	16 (20.0)	29 (8.6)
	아가페	56 (25.0)	2 (6.0)	12 (15.0)	70 (20.7)
계		224 (66.4)	33 (9.7)	80 (23.7)	337(100.0)
χ^2		29.987***			
df		10			

*** $p \leq .001$

<표 6>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

변인	집단	이성교제 만족도			이성교제 지속기간		
		N(%)	M(S.D)	Scheffe ^{a)}	N(%)	M(S.D)	Scheffe
애착유형	안정	212 (68.1)	73.67 (9.0)	1>3	105 (70.4)	17.89 (14.2)	
	불안·양가	29 (9.3)	70.07 (6.7)		10 (6.7)	13.70 (8.5)	
	회피	70 (22.5)	69.60 (10.2)		34 (22.8)	17.62 (12.6)	
계		311(100.0)	72.42 (9.27)		149(100.0)	17.54 (13.53)	
F-value		6.313**			.434		

** $p \leq .01$

6) '1'은 안정적 애착유형, '2'는 불안·양가적 애착유형, '3'은 회피적 애착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며, 부등호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집단 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사랑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

변인	집단	이성교제 만족도			이성교제 지속기간		
		N	M(S.D)	Scheffe ^a	N	M(S.D)	Scheffe
사랑유형	에로스	73	76.01 (8.65)	1)2,3	51	15.39 (8.82)	1)6
	루두스	17	66.35 (5.97)	2)6	11	5.91 (4.81)	2)6
	스토르계	20	67.40 (7.71)	3)1,6	11	21.18 (14.20)	
	프래그마	100	68.89 (8.08)	4)1,6	41	18.41 (13.76)	
	매니아	28	73.96 (7.66)		12	13.92 (8.35)	
	아가페	61	77.31 (9.21)	6)2,3,4	21	28.24 (18.74)	6)1,2
계		299	72.58 (9.17)		147	17.67 (13.33)	
F-value		14.017***			5.849***		

*** $p \leq .001$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적 애착 유형과 회피적 애착유형 사이에서만 이성교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정적 애착유형 사람들의 이성교제 만족도가 회피적 애착유형 사람들의 이성교제 만족도보다 평균 4.0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leq .05$) 즉,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의 이성교제 시 평균 만족도가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김주연(2001), Shi(2003), 김광은(2005)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하는 결과로, 이들의 연구에서는 안정적 애착유형 사람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 정도가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이나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성인 애착유형에 따라 평균 이성교제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안정적 애착유형 사람들의 평균 이성교제 지속기간은 17.89개월(S.D=14.2),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평균 13.70개월(S.D=8.5),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평균 17.62개월(S.D=12.6)로 나타났다.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각 애착유형 별 평균 이성교제 지속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4.34$)

5. 사랑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

6가지 사랑유형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랑유형에 따른 평균 이성교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1번 이상 있으면서 사랑유형에서 한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된 총 299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

었고, 평균 이성교제 지속기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성교제 중이면서 사랑유형에서 한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된 147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먼저, 사랑유형에 따른 평균 이성교제 만족도를 살펴보면 에로스(n=73) 76.01점(S.D=8.65), 루두스(n=17) 66.35점(S.D=5.97), 스토르계(n=20) 67.40점(S.D=7.71), 프래그마(n=100) 68.89점(S.D=8.08), 매니아(n=28) 73.96점(S.D=7.66), 아가페(n=61) 77.31점(S.D=9.21)으로 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4.017***$)

이를 근거로 Scheffe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에로스 유형의 평균 이성교제 만족도가 루두스, 스토르계 유형보다, 아가페 유형의 평균 이성교제 만족도가 루두스, 스토르계, 프래그마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할수록 유희적, 우애적, 실용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평균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랑유형에 따른 평균 이성교제 지속기간은 에로스 15.39개월(S.D=8.82), 루두스 5.91개월(S.D=4.81), 스토르계 21.18개월(S.D=14.20), 프래그마 18.41개월(S.D=13.76), 매니아 13.92개월(S.D=8.35), 아가페 28.24개월(S.D=18.74)로 아가페 유형이 가장 길고, 루두스 유형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랑을 그저 놀이로 생각하고 가볍게 즐기는 루두스 유형은 이성교제 지속기간 역시 짧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이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F=5.849***$), Scheffe 검증을 이용해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에로스, 루두스, 아가페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아가페 유형 사람들의 평균 이성교제 지속기간이 에로스보다 12.85개월, 루두스 유형보다 22.33개월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7) 1부터 6까지의 숫자는 6가지 각 사랑유형을 나타내고, 부등호는 각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해준다.

IV. 결론 및 제언

현대 사회에서 이성교제는 배우자 선택의 기초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결혼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성교제 만족도와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인 애착유형과 사랑유형을 관련 변인으로 두고 이들 간의 관련성과 두 변인이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인애착유형 하위변인 간 차이에서 가족유형이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성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인 애착유형 분류 기준의 하위요인인 친밀감, 불안감, 의존감 정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친밀감 점수가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의존감 점수 유의미하게 높았다.⁸⁾ 이것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안정적 애착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회피적 애착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지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가족유형 및 출생순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오늘 날에는 대부분이 핵가족을 형성하고 자녀의 수도 2명 이하이기 때문에 가족유형이나 출생순위가 애착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예전에는 자녀의 수도 많고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게 특별히 사랑 받는 아이-아들, 혹은 장남-가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 다른 아이들이 희생을 강요받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가족의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그러한 사상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유형이나 출생순위가 애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양육기간 동안 부모와의 유대에 따른 성인 애착유형 분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와의 유대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성인들의 대부분이 안정적 애착유형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유형과 회피적 애착유형에 속한 성인은 그들에 비해 부모와의 유대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기간 동안 부모와의 유대 정도가 깊을수록 안정적 애착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와의 유대가 깊다는 것은 자녀가 양육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일관되고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았음을 의미하므로, 부모로부터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보살핌을

받은 성인은 안정적 애착유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민감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자란 성인은 불안·양가적 애착이나 회피적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Main & Weston, 1981; Sroufe, 1979)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보다 부모와의 유대 수준이 낮은 것은 일관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불안·양가적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의 양육자는 때로는 자녀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잉보호를 하기도 해 그 반응 패턴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반면,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양육자가 그들에게 감정적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타인들에게 비감정적이고, 무반응적인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과 연관지어 볼 때,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양육자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 때문에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양육자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비감정적이었던 양육자와의 관계에 특별한 감정을 덜 보이는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보다 부모와의 유대가 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감하고 지속적인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사랑유형 분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안정적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사랑유형에서 프래그마 - 아가페 - 에로스의 순을 보였지만,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프래그마 - 에로스 - 매니아,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프래그마 - 매니아 - 에로스 순의 분포를 보였다. 안정적 애착유형의 성인들 중 매니아에 속한 사람은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유형과 회피적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각각 3, 2 순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유의미하게 해석될 수 있다. 즉,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보다 사랑을 할 때, 소유욕이 강하고 강한 집착과 질투가 특징인 매니아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써 이는 장휘숙(2002)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특히, 모든 사랑유형에서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에 비해 매니아 유형에서만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하는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 번 사랑을 하게 되면 파트너에게 극도의 소유욕, 집착, 질투 등을 보이는 매니아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프래그마 유형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8) 본 연구에서 의존감 점수가 높다는 것은 의존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모든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프래그마 유형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간의 불일치는 성인 미혼남녀들이 이전보다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성향과 본 연구 대상자의 사랑유형이 각 유형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해 부모 혹은 주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올바른 애착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부분이다. 즉, 자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민감하고 일관된 양육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성인 애착유형에 따라서 이성교제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적 애착유형에 속한 성인들의 평균 이성교제 만족도는 73.67점으로 불안·양가적 애착유형 70.07점, 회피적 애착유형 69.60점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사후검증을 통해 안정적 애착유형과 회피적 애착유형의 평균 점수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김광은, 2005; 김주연, 2001; 오선영, 2005; Feeney & Noller, 1990; Shi, 2003)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의 이성교제 만족도가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앞에서, 성인 애착유형은 양육 과정 동안 부모와의 유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종합해 볼 때, 양육 과정 동안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애착으로 나타나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하고 이는 성인의 이성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되어 그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생애 초기에 부모(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성인은 자신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다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일수록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이성교제 기간은 안정 > 회피 > 불안·양가의 순으로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 애착유형이 이성교제 지속기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랑유형에 따른 평균 이성교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유형 별 평균 이성교제 만족도는 아가페, 에로스, 매니아, 프래그마, 스토르계, 루두스의 순으로 나타나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할수록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에로스와 아가페가 일반적으로 관계 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루두스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Hendrick et al., 1988; Monthomery & Sorell, 1997; Richardson, Medvin, Hammock, 1986; Yancey & Berglass, 199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각 유형의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에로스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의 이상형인 상대에게 열정적으로 빠져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미혼남녀에게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이 그들의 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가페 유형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헌신적으로 베풀고 사랑의 상호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갈등요소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갈등요소가 적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 이들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며, 상대방을 돌보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스토르계나 프래그마 유형 사람들의 평균 이성교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온 것은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23.05세로 비교적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정에 근거한 안정적인 사랑이나,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랑보다는 강한 느낌을 수반하는 사랑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루두스 유형의 사람들은 사랑을 그저 단순한 게임이나 놀이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현재의 파트너를 떠날 준비가 되어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랑유형에 따른 평균 이성교제 지속기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에로스와 아가페 유형의 평균 이성교제 지속기간이 각각 15.39개월, 28.24개월로 루두스 유형의 5.91개월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성교제 횟수가 많을수록, 그 기간이 짧을수록 루두스적 성향을 많이 보인다는 장휘숙(2002)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유희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어 있는 것을 싫어하고, 단순히 즐기기 위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지속기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짧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에로스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형과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 시작된 관계이고, 이상적인 연인을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이성교제 지속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 아가페 유형의 경우,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사랑에 대한 상호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파트너와 갈등을 불러일으킬만한 요소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 지속된

다고 볼 수 있다. 에로스와 아가페 유형은 이성교제 만족도에서도 루두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그들의 유형적 특성 때문에 이성교제 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난 것인지,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아서 지속기간이 긴 것인지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에로스와 아가페 유형은, 성인 애착유형과 사랑유형 간의 관련성 분석에서도 안정적 애착유형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이성교제 만족도와 지속기간에서도 모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이 두 유형이 성인 애착유형 및 이성교제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인 미혼남녀들은 양육 기간동안 부모(주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자녀 간 유대가 깊은 성인들이 안정적 애착유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안정적 애착유형을 형성한 성인들은 사랑을 할 때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형성한 성인들보다 부정적인 사랑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적었으며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관계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유형 역시 그 특성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 및 지속기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 애착유형과 사랑유형 모두 이성교제 시 관계의 질(quality)이나 만족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종합해 볼 때, 원가족 내에서의 올바른 애착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선행 연구들에서 이성교제 시 관계의 만족 정도는 이후 결혼 생활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안정적 애착형성은 나아가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올바른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예비부부 교육에서도 활용하여 교제 당사자들이 스스로와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와의 유대부터 이성교제에 이르기까지, 원가족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배우자 선택 및 결혼 생활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성교제 관련 변인을 밝혔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이성교제 당사자 간의 유형 일치나 불일치에 따른 상호성을 보지 못한 것에 그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성인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Collins & Read(1990)의 척도는 하나의 절대적인 유형 분류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애착 유형에 따라 분류된 대상자들 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랑유형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사랑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다 다양한 연령층

을 대상으로 이것이 그들의 이성교제나 배우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성교제에는 애착이나 사랑유형 외에도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갈등해결 방안 등 보다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한다면 관련 변인이 그들의 배우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상호작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진경(1996).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성인기 사랑 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은(2005).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부부갈등 대처전략. *한국심리학회지*, 17(3), 707-734.
- 김덕일(1996). 애착유형에 따른 부부 간의 사랑유형과 결혼 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녀(2003). K-MSI를 활용한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문영소, 박정윤(2003).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7, 53-72.
- 김주연(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 및 이성 관계 만족도와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익상(2002). 한국 도시 기혼남녀의 배우자 만족도 연구; 개인적, 환경적, 상호작용 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미(2003). 미혼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영(2005). 성인기 애착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데이트 관계 만족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소영(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재(2001). 성인 전기의 사랑유형과 자아 존중감, 신뢰감 및 관계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수, 유영주(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14.

- 장휘숙(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 변인들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15(4), 93-111.
- 정유정(2005). 대학생의 자기노출과 이성관계 만족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5(2), 85-102.
- 최혜경, 신수진, 강진경(2004). *사랑학*. 서울: (주)교문사.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T. Greenberg, D., Cicchetti & E.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Feeney, J. A.,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romm, E.(1956).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rpe.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S.(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Hendrick, C., Hendrick, S., & Dicke, A.(1988). The love attitudes scale: short form.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2), 147-159.
- Kenny, D.A., & Kashy, D.A.(1994). Enhanced co-orientation in the perception of friends: A social relationship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24-1033.
- Lee, J. A.(1973). *Colors of love*. Toronto: New Press.
- Lee, J. A.(1988). Love-styles. In R. Sternberg & M.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ain, M., & Weston, D.R.(1981). The quality of toddler relationship to mother and father as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66-104.
- Maslow, A.H.(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Meeks, B. S., & Hendrick, S. S., & Hendrick, C.(1998). Communication, lov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5, 755-773.
- Montgomery, M. J., & Sorell, G.T.(1997). Differences in love attitudes across family life stages. *Family Relations*, 46, 55-61.
- Parker, G., Tupling, H., & Brown, L.B.(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1), 1-10.
- Richardson, D.R., Medvin, N., & Hammock. G.(1986). *Love styles, Romantic experience, and sensation seeking: A test of validit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Shi, L.(2003).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onflict resolu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 143-157.
- Spanier, Graham, B., & Robers, A. Lewis.(1979).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25-839.
- Sroufe, L.A.(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twelve and eighteen months: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4), 971-975.
- Sternberg, R.J.(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Yancey, G., & Berglass, S.(1991). Love styles and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Reviews*, 68, 883-890.

(2006년 7월 21일 접수, 2006년 11월 6일 채택)